

니카라과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8. 5.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9
IV. 국제신인도	13
V. 종합 의견	16

I. 일반개황

면적	130천 km ²	GDP	137억 달러 (2017년)
인구	6.2백만 명 (2017년)	1인당 GDP	2,207달러 (2017년)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Córdoba(C)
대외정책	경제중심 실리외교	환율(달러당)	30.05 (2017년)

□ 중미에 위치한 니카라과는 1821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고 중앙아메리카 연방*에 가입했으나, 1838년 독립국가를 선언함. 1980년대 이념 대립으로 인한 내전이 발생하였으나 1994년 종결됨.

* 1823~1838년,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등 5개 공화국이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할 때 취한 연방제도

- 내전 당시 과도한 국방비 지출과 사회기반시설 파괴 등의 영향으로 중남미 국가 중 아이티 다음으로 1인당 GDP가 낮은 빈국을 지속 중임.

□ 농업이 GDP의 15%를 차지하는 농업기반 국가로 기후변화 등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World Bank, 미주개발은행(IDB) 등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의 금융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임.

□ 2016년 연임에 성공한 다니엘 오르떼가 대통령은 여당의 국회내 과반수의석 확보를 통해 정책추진 동력을 마련하고 있음. 한편, 2018년 4월 사회보장기금(INSS) 개혁안 발표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가 지속되며 정치·사회적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음.

□ 미국 및 베네수엘라와 주요 경제적 협력관계를 형성한 가운데, 멕시코, 대만 등과의 FTA 체결, 한-중미 FTA 참여 및 러시아와의 관계강화 노력 등 협력기반 다변화에도 노력하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f
경제성장률	4.8	4.9	4.7	4.9	4.7
소비자물가상승률	6.0	4.0	3.5	3.9	6.2
재정수지 / GDP	-1.2	-1.4	-1.6	-1.7	-2.0

자료: IMF.

□ 수년간 4%대 후반의 견조한 경제성장세 유지

- 니카라과 경제는 농업기반 경제 및 높은 대미 의존도(2017년 총 수출의 약 40%)로 인해 작황조건과 미국의 정책변화 등 외부환경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
- 니카라과는 정부의 인프라 관련 투자 지속, 해외로부터의 송금액 유입 증가 및 내수활성화 등에 힘입어 2014~17년 동안 평균 4.8%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시현함.
 - 최근 3년(2014~17) 평균 GDP 대비 투자비율은 약 31%로, 이는 같은 기간 수리남(58.6%), 파나마(44.4%)에 이어 중남미 내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해외근로자 송금액 유입도 지속되어 2014년 11.4억 달러에서 2017년에는 13.9억 달러로 증가함.
 - 2016년에는 대선 및 총선으로 국내 소비가 증가하였음에도 수출 감소 등으로 성장률이 전년대비 소폭 하락한 4.7%를 기록하였고, 2017년에는 세계경제 회복과 농수산물 등 수출 증가에 힘입어 성장률이 4.9%를 기록함.
- 이러한 경제성장세는 최저임금인상('18.3.9자 인상률 결정: 10.40%)에 따른 민간구매력 상승과 세계 경제 회복세에 따른 수출 증가로 2018년에도 비슷한 수준을 지속할 전망이나, 미국의 니카라과 투자제한법(Nica Act)* 발효 가능성 등은 성장 둔화의 불안요인으로 상존하고 있음.

* Nicaragua Investment Conditionality Act : 국제금융기관의 대 니카라과 투자를 제한하는 법안('17. 10월 미하원 통과, 미상원 통과 및 대통령 재가 후 발효 가능)

□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는 점진적 증가세

- 세계개혁('12.12)에도 불구하고 빈곤퇴치, 공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사회보장관련 정부지출이 계속되면서 2012년 재정수지가 적자 전환한 이래 적자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
- 정부 수입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 594억 페소에서 2017년에는 약 1,050억 페소로 2배 가량 크게 증가하였으나, 정부 지출이 더 크게 증가하면서 적자를 지속함.
- 특히, 사회보장기금(INSS)의 적자규모는 GDP의 약 0.6%에 이르며, IMF는 2018년 1월 실사조사에서 국민평균 수명 증가에 따른 연금지급 고갈을 우려하여 정년연장 등 동 기금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
- 다만, 재정적자 규모가 전체 GDP의 2% 미만으로 양호한 경제성장률 등 감안시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며, 정부의 전기요금 보조금 삭감, VAT 면제대상 축소 및 사회보장기금(INSS) 개선 추진 등은 재정적자 심화를 완화할 것으로 보임.

□ 소비자물가상승률, 하락세 지속 후 2017년 상승세 전환

- 니카라과는 통화안정을 목적으로 1993년 미국 달러화 대비 코르도바화의 환율 변동을 소폭으로 제한하는 크롤링 페그제(crawling peg)를 도입함.
-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강세 및 외환보유고 증가는 크롤링 페그제 운영을 지지하며 외부충격을 완충하고 있음.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2년부터 하락세를 지속한 가운데, 2015년 및 2016년에는 수입원자재 가격 하락 및 자연재해 피해 감소에 따른 농축산 식품가격 안정으로 2014년 대비 크게 개선('14년 6.0% → '15년 4.0% → '16년 3.5%)됨.
- 한편, 2017년에는 유가 및 하반기 식료품 가격 인상 등의 영향으로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대비 소폭 상승한 3.9%를 기록하였으며, 최근의 유가 회복세 등을 감안할 때 2018년에는 보다 큰 폭의 상승이 예상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자연재해에 따른 경제 부침 및 인프라시설 미비

- 니카라과는 환태평양대에 위치하여 5도 이상의 강한 지진, 태풍 등이 자주 발생하며, 주요 수출 품목이 커피, 소고기, 새우, 설탕 등 농축수산물에 집중(FOB 기준 38%)되어 있어 경제가 자연재해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
- 또한, 꾸준한 인프라 투자에도 불구하고 항구 및 항공시설 등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며, 전력공급 손실률도 20.8%(2014년 기준)로 중남미 평균 15.6%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됨.
 - 2017-18 The Global Competitiveness Index에 따르면, 니카라과의 전반적인 인프라 경쟁력은 92/137위이며, 도로 품질은 54/137위로 2014-15년 88/144위 대비 개선되었으나, 항구와 항공 인프라의 품질은 각각 110/137위 및 102/136위로 여전히 하위권을 지속함.

□ 국제사회의 원조에 대한 높은 의존도

- 니카라과는 미주개발은행(IDB), World Bank 등 국제기구로부터 장기 및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이는 경제 개발의 주요 자원인 동시에 공공채무 누적 및 대외환경 변화에 대한 취약성 등의 원인이 되고 있음.
 - 특히, 미국 의회가 추진 중인 니카라과 투자제한법(NICA Act)이 발효될 경우, 장기적으로 국제금융기관 지원 감소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의 우려가 있음.
- 니카라과는 그동안 전체 원유 수입액의 90%를 베네수엘라로부터 시장가로 수입하고, Petrocaribe 협정*에 따라 수입결제 대금의 50%를 양허성 차관 형태로 수취하여 사회복지 성격의 지출 및 인프라 투자에 활용해 왔음.
 - * 2005년 6월 베네수엘라가 카리브해 국가들과 체결한 에너지동맹으로, 베네수엘라는 회원국 앞 할인된 가격으로 석유를 공급하고 대금의 30~70%는 90일 이내 결제하되, 나머지 대금은 장기 저금리 또는 상품·서비스의 수출을 통해 상환토록함.
 - 한편, 니카라과 정부는 베네수엘라의 경제불황과 정치 불안정성 증가로 에너지수급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면서 원유 의존도 완화를 위한 신재생 개발에 적극 노력하고 있음.

- 니카라과 전력청에 따르면, 2006년 전체 전력 생산의 26.9%에 불과했던 재생에너지 비율은 2016년 52.8%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화력 발전 비율은 73.1%에서 47.2%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나. 성장 잠재력

□ 중미 국가 중 상대적으로 넓은 국토 면적과 풍부한 천연 자원 보유

- 니카라과의 국토면적은 130천 km²로 중미 국가 중 가장 넓은 영토를 보유하고 있으며, 금, 은, 구리, 납 등 광물자원도 풍부함.
- 또한 커피, 사탕수수, 면화 등 농산물과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을 중심으로 농업 및 축산업이 발달함.

□ 열대성 기후, 비교적 양호한 치안수준에 기반한 관광 잠재력

- 니카라과는 열대성 기후, 여타 중미 국가 대비 양호한 치안수준, 태평양 주변 넓은 해안지대 등의 특성을 기반으로 관광지로서의 잠재력이 높음.
- 세계경제포럼(WEF)의 2017 관광경쟁력 순위에 따르면, 136개 국가 중 니카라과는 전체 순위에서 92위를 기록하였고, 특히, 안전 및 치안(Safety&security) 부문은 65위로 중미 국가 중 최상위 수준(코스타리카 68위, 파나마 79위, 에콰도르 85위)으로 평가됨.

< 북미 및 중미지역 안정 및 치안부문 점수(0~7) 비교 >

Country/Economy	Global rank	Business environment	Safety and security	Health and hygiene	Human resource and labour market
NORTH AND CENTRAL AMERICA					
United States	6	5.4	5.2	5.7	5.5
Canada	9	5.3	6.1	5.6	5.5
Mexico	22	4.2	4.2	5.3	4.6
Panama	35	4.9	5.3	5.1	4.4
Costa Rica	38	4.5	5.4	5.0	4.9
Barbados	58	4.4	5.6	6.0	4.7
Jamaica	69	4.8	4.0	4.7	4.7
Trinidad and Tobago	73	4.4	4.1	5.1	4.5
Dominican Republic	76	4.2	4.5	4.9	4.1
Guatemala	86	4.4	3.7	4.6	4.1
Honduras	90	4.2	3.5	4.6	4.3
Nicaragua	92	3.5	5.4	4.6	4.2
El Salvador	105	4.0	3.0	4.9	4.2
North and Central America Average		4.5	4.6	5.1	4.6

출처: World Economic Forum, The Travel&Tourism Competitiveness Report 2017

- World Bank에 의하면, 연간 니카라과를 방문하는 관광객수는 2011년 106만 명에서 2016년에는 150만 명으로 1.5배 가량 증가함.
- 니카라과 관광청(Intur)에 따르면, 관광 수입이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약 17%에서 2016년에는 약 29% 규모로 증가함.

□ 니카라과 운하 건설시 중남미 물류 중심국으로의 도약 가능

- 2012년 9월 니카라과 정부는 홍콩니카라과운하개발(HKND)*과 니카라과 운하 건설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2014년 12월 착공함.

*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 베이징신웨이 텔레콤의 계열회사

- 동 운하는 니카라과 호수를 관통해 태평양 연안 브리토와 대서양 카리브해 연안 폰타 고르다에 이르는 총 길이 278km, 폭 230m 이상으로 계획되었으며, 완공시 파나마 운하에 비해 대형선박의 통과가 용이하고 북미 동부-태평양 항해거리의 단축이 가능할 전망이다.
- HKND는 500억 달러를 투자하여 운하 완공 후 50년간 운영할 계획이며, 니카라과는 대규모 공사에 따른 고용창출 등 낙수효과와 완공시 파나마와 함께 중미의 주요 해상 물류센터로의 자리매김이 기대됨.

<니카라과 및 파나마 운하 비교 >



구 분	니카라과 운하	파나마 운하 (확장 기준)
구 간	브리토 ~ 폰타고르다	콜론 ~ 파나마시티
총 연 장	276km	80km
폭	230m 이상	55m
수 심	29m	28.3
통행가능 선 박	25,000TEU	13,000/ 14,000 TEU
완 공	2024년 (예정)	1914년 개통 ('16G. 확장 개통)

이미지 출처: 두산백과(www.doopedia.co.kr)

표 출처: 저자 정리

- 다만, 착공 이후 공사 진척은 부진한 상황으로, 환경영향평가, 자금 조달 계획 및 수익모델 등에 대한 자세한 발표가 없고, HKND 왕징 회장 소유 자산의 급감 및 자금난 우려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음.

- 2015년 11월 니카라과 대운하위원회는 영국의 국제환경영향평가회사인 ERM(Environmental Resources Management)이 제출한 환경영향보고서에 대한 승인을 발표하였으나 상세 내용은 미공개 상태임.

다. 정책성과

□ 우호적 투자환경 조성 노력으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지속

- 낮은 임금과 외국인투자장려법을 통한 통화대환성 보장, 국외 거주자 재산권 보호, 세제혜택 부여 등의 우호적 투자환경 조성 노력을 통해 연간 8억 달러 이상(GDP의 6% 상회)의 FDI가 니카라과로 유입되고 있으며, 주요 투자 분야는 공업 및 통신임.

※ 연도별 FDI 유입액(백만 달러): 884('14) → 950('15) → 888('16) → 897('17)

- 한편, 행정절차 지연, 공무원 부정부패, 법률 및 분쟁에 대한 정부 및 회의 영향력 행사 등은 대 니카라과 투자의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됨.
- World Bank 기업경영여건 평가(Doing Business 2018) 결과 조사대상 190개국 중 니카라과의 종합순위는 131위로, 대외무역(74위), 계약실행(87위) 등에서는 비교적 높은 순위를 기록했으나, 건축인허가(174위), 소액투자자 보호(167위), 조세납부(159위) 등은 하위권을 기록함.

□ 국방비 지출 등을 통해 치안수준 개선

- 니카라과의 치안 수준은 국방비 지출 증대 등으로 점차 개선되어 오르테가 대통령이 취임 초인 2008년 대비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됨.
- 2017-18 The Global Competitiveness Index의 각 부문별 경쟁력 순위에서 니카라과는 테러관련 사업비용 6/137위 (78/134위)*, 범죄 및 폭력 관련 사업비용 57/137위 (90/134위)* 및 조직화된 범죄 31/137위 (78/134위)* 등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는 2008-09 The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순위/ 순위가 높을수록 치안 수준이 양호함을 의미

□ 국제기구로부터 국가개발을 위한 자금 유입 지속

- 니카라과는 IMF, World Bank,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등 국제기구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 결과 국제 다자 및 양자 기구로부터 금융을 지원받아 국가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음.

- 중미경제통합은행(CABED)는 2018년 총회에서 니카라과에 대해 향후 5년간 도로, 전력, 상수도 등 관련 사업에 약 20억 달러를 지원할 계획을 확정하였고, 이외, World Bank, 일본 및 대만 정부의 유무상 지원도 지속되고 있음.

3. 대외거래

□ 2017년 상품수출 증가로 경상수지 적자폭 개선

- 니카라과 경제는 커피, 사탕수수, 직물 등을 주로 수출하고 원유와 원자재를 수입하는 구조로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를 기록 중이나, 해외 근로자 송금에 기반한 경상이전수지 흑자가 이를 일정부분 상쇄하고 있음.
- 연간 해외근로자 송금액은 전체 GDP의 10% 수준이며, 매년 증가하여 2017년에는 13.9억 달러를 기록함.
- 2016년에는 주력 수출품인 농축산품의 국제시세 하락 등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가 전년대비 0.4%p 감소한 -8.6%를 기록하였고, 2017년에는 수출 품목의 국제시세 회복 및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GDP 대비 -6.2%로 크게 개선됨.
- 니카라과 중앙은행에 따르면, 2017년 주요 수출품(자유무역공단 제외)은 커피(5.1억 달러), 소고기(5.1억 달러), 금(3.3억 달러) 등이며, 주요 산업별 수출 증가율은 농축산업 24%, 제조업 17.4%, 수산업 5.5%, 광업 -9.1%로 조사됨.
- 한편, 니카라과의 주요수출국은 미국(39.7%)과 엘살바도르(10.4%), 코스타리카(5.5%), 베네수엘라(4.6%) 등 인근 중남미 국가들로 이들 국가 앞 수출이 전체 수출의 64% 이상을 차지함.

□ 외환보유액은 전년대비 12.7% 증가한 28억 달러 기록

- 니카라과는 꾸준한 FDI 유입과 해외근로자 송금액 증가로 월평균 수입액 대비 3개월을 상회하는 외환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외환보유액이 전년대비 약 12.7% 증가한 27.6억 달러를 기록함.
- 또한, 니카라과는 중앙은행과 중미경제통합은행(CABED)* 간 2억 달러의 긴급 신용제도(Contingent Credit Line) 체결을 통해 유동성 위기에 대비하고 있음.

- * Central American Bank for Economic Integration: 중미 지역의 사회경제적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1960년 12월 설립된 지역 최대의 금융기관. 창설 회원국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등 5개국이며, 이외 파나마, 도미니카공화국, 벨리즈 등과 멕시코, 타이완,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스페인 등 5개국이 역외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음.
- 니카라과 중앙은행은 2009년부터 중미경제통합은행으로부터 긴급신용 제도를 지원받고 있으며, 2017년 9월 1일자 8차 연장(1년 유효)에 합의함.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f
경 상 수 지	-845	-1,143	-1,134	-694	-1,129
경 상 수 지 / GDP	-7.1	-9.0	-8.6	-6.2	-7.8
상 품 수 지	-2,169	-2,545	-2,612	-2,470	-2,499
수 출	4,150	3,859	3,772	4,142	4,433
수 입	-6,319	-6,405	-6,384	-6,613	-6,932
외 환 보 유 액	2,276	2,492	2,448	2,758	2,896
총 외 채 잔 액	10,202	10,480	10,929	11,315	11,724
총 외 채 잔 액 / GDP	85.9	82.2	82.6	82.6	80.4
D . S . R .	10.3	11.9	12.1	11.8	11.6

자료: IMF, OECD, EIU.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 안정

□ 대통령 연임 및 여당의 과반수 의석 확보로 집권력 강화

- 현 정부는 2016년 11월 선거에서 중도좌파 성향의 다니엘 오르떼가 (Daniel Ortega) 대통령의 3선 연임 성공 및 영부인 로사리오 무리요 (Rosario Murillo)의 부통령 당선으로 정치적 장악력을 공고히 함.
- 오르떼가 대통령은 높은 경제성장률 실현과 빈곤감축 노력으로 2016년 선거에서 72.5%의 득표율로 통산 4선이자 3선 연임(1985~1990년 및 2007~현재)에 성공함.
- 여당인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FSLN)은 국회 내 71/92석 확보로 정부의 주요 정책수립 및 추진 등을 위한 동력을 마련한 가운데, 2017년 11월 실시된 지방선거에서도 135/153개 시에서 승리하며 높은 득표율을 지속함.

□ 최근 지속된 반정부 시위로 정치적 불안정성 증가

- 취약한 선거제도, 부정선거 의혹 및 대통령 독재 우려 등이 정치건전성 및 안정성 제고의 주요 해결과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2018년 4월 18일 사회보장기금법(INSS, Instituto Nicaraguense de Seguridad Social) 개정 발표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가 지속되며 사회적 불안정과 더불어 정치적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음.
- 미주기구(OAS, Organisation of American States)는 2017년 11월 선거 감시단 보고서 발표를 통해 개표결과 번복에 대한 조사를 권고하고 취약한 선거제도 개선 및 선거법 개정을 시급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 바 있음.
- 개정 반대로 시작된 시위는 정권 퇴진 및 민주화를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로 확산되었고, 대통령의 법 개정 철회(4.22) 및 국민과의 대화 추진으로 다소 소강된 상태이나 여전히 정치적 불안요소로 지속 중임.
- EIU 및 BMI 등 경제전문지들은 시위대 내 리더십 부재 및 정부의 정권장악 등을 이유로 오르떼가 대통령의 집권 유지를 전망하고는 있으나, 동시에 시위 지속에 따른 정치적 변동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음.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중남미 국가들 대비 높은 빈곤율

- 정부의 적극적인 빈곤감소 노력과 서민복지 정책으로 빈곤층 비율이 크게 감소(World Bank, '09년 42.5% → '16년 24.9%)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남미 국가 중에서 최빈국에 해당함.
- 니카라과의 2017년 기준 1인당 GDP는 2,207달러로, 이는 중남미 지역에서 아이티(784달러) 다음으로 낮은 수준임. 또한, 중산층 비율도 2014년 기준 전체 인구의 18%로 중남미 국가 중 세 번째로 낮음.

□ 반정부 시위가 지속되며 사회적 불안감 조성

- 2018년 4월 18일 오르떼가 대통령의 사회보장기금(INSS) 관련 법 개정으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가 정권퇴진 및 민주화 요구 시위로 확산되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됨.

- 사회보장기금은 그동안 적자(2017년 GDP의 0.6%)를 지속해 왔으며, IMF는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금을 위한 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정부는 4월 16일 노사측 분담금 인상 및 연금수령액 삭감 등을 포함한 사회보장기금 개정(안)을 발표함.

※ 개정(안) 주요 내용

- 분담금 인상: (현행) 25.5% → ('20) 30.75 (▲5.25%, 점진적 인상)
 - * 정부(0.25% → 1.25%), 고용자(19% → 22.5%), 노동자(6.25% → 7.0%)
 - 연금수령액 5% 삭감
- 한편, 동 개정이 고용불안, 소비위축 등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킬 것을 우려한 반대자들은 4월 18일 군소 반대시위를 진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 지지세력과 충돌하며 이후 정권퇴진 및 민주화를 요구하는 전국적인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확산됨.
 - 이에, 정부는 법 개정을 철회(4.22)하고 시위 관련 언론사 차단* 해제, 체포된 시민 석방 및 민간과의 대화 추진** 등 조치를 실시함.
 - * 정부는 4.19자로 시위현장을 방송한 5개 민간방송사의 방송을 차단한 바 있음.
 - ** 정부는 니카라과 주교회가 중재하고 니카라과 전경련(COSEP) 등이 참여하는 국민과의 대화를 추진 중임.
 - 정부의 법 개정철회 및 국민과의 대화 추진으로 다소 소강되었던 시위는 최근 다시 격화되는 양상이며, 향후 정부와 국민과의 대화 결과가 반정부 시위 향방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임.
 - 정부와 시위대 간 무력충돌로 최소 60명 이상이 사망하고, 공공청사 방화, 상점 약탈 등 피해가 발생함. 한편, 정부는 미주기구(OAS) 인권위원회 감시단의 방문을 수용하고 5월 16일부터 대국민 대화를 진행 중임.
 - 한편,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2017년 민주주의 지수에 따르면, 니카라과는 평균 4.66점으로 "hybrid regime*"으로 분류되었고, 중남미 국가 중 105/167위를 기록하여 2008년 이후 27계단 하락한 것으로 조사됨.
 - * EIU는 민주주의 지수를 0~10점으로 평가하고, 점수에 따라 Full democracy, Flawed democracy, Hybrid Regime, Authoritarian regime의 4단계로 구분

< Democracy Index 2017 >

■ 부문별 점수

구분	점수 (0~10점)
선거과정	3.42
정부기능	3.29
정치참여	3.89
정치문화	5.63
자유권	7.06
평균	4.66

출처: EIU



3. 국제관계

□ 대외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

- 니카라과는 베네수엘라 등 좌파정권과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는 동시에, IMF 등 국제기구의 경제·재정적 지원과 미국의 원조 및 FDI 등 경제협력에 의존하는 실용적 외교정책 기조를 유지해 왔음.
- 니카라과의 공적채무 중 미주개발은행(IDB),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등 다자기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6%이며, 2013~16년간 공적개발자금(ODA) 유입규모(순지출기준)는 평균 약 4.5억 달러로 주요 공여국은 미국, 스위스 등임.
- 다만, 베네수엘라의 경제위기로 인한 경제적 지원 감소, 미국 정부의 베네수엘라 정부에 대한 부정적 입장 견지 및 니카라과 투자제한법(NICA Act) 추진 등의 영향으로 최근 니카라과의 대외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대두되고 있음.
- 미국은 니카라과의 공정선거 강화 등을 위한 조치로 국제금융기관의 대 니카라과 투자를 제한하는 투자제한법(NICA Act)을 발의('17.10.3자미하원 통과)하였으며, 동 법안이 최종 승인될 경우 국제사회의 니카라과 앞 차관공여에 대한 상당한 제약이 우려됨.

- 한편, 니카라과는 미국-중미-도미니카공화국 간 자유무역협정인 DR-CAFTA (Dominican Republic-Central America FTA) 참여 및 러시아와의 군사기술 분야 협력 등을 추진하며 국제협력 다변화에 노력하고 있음.

□ 코스타리카와는 해묵은 영토분쟁 종식

- 코스타리카와는 2010년부터 산 후안(San Juan)강 주변의 영유권을 둘러싼 갈등을 지속해 왔으나, 2018년 2월 2일 발표된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영유권 경계 판결을 양국이 수용하면서 향후 양국 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마련함.
- 동 판결은 양국의 의견을 수용한 중립적인 결과로 평가되며, 또한 판결에 의거 니카라과 정부는 3월 7일자로 코스타리카 정부 앞 Portillos섬 환경피해보상금(약 388천 달러)의 지급을 완료함.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황태도

□ 양호한 외채구조로 외채는 관리가능 수준으로 분석

- 니카라과의 GDP 대비 총 외채비중은 80% 이상으로 높은 수준(OECD '17.10월 기준)*이나 대부분 장기외채이고, 공적채무도 IDB 등 다자기구로부터의 채무로 구성되어 채무구조가 비교적 양호한 편임.

* GDP 대비 외채비중 추이(OECD '17.10월 기준)
: 85.9%('14) → 82.2%('15) → 82.6%('16) → 82.6%('17^o)

- '17. 6월 IMF 외채지속가능성분석(Debt Sustainability Analysis)에 따르면 2016년 정부 및 정부보증 채무는 GDP의 32%로, 다자채무 76%, 양자채무 24%로 구성되고 이중 IDB 및 CABI의 비중이 각 38%, 14%를 차지함.
- 니카라과 중앙은행 발표에 따르면, 2017년 총 외채규모는 약 115억 달러(전년대비 4.4% 증가)임. 공적채무는 약 55억 달러(전년대비 10% 증가)로 GDP의 40%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이중 93% 가량이 다자금융기구(IDB 53.7%, CABI 26%, WB 7.5%, OFID 2.7% 등)로부터 차입됨.

- 또한, 총외채 중 단기외채규모가 7% 내외에 불과하고, 외채원리금상환 비율(D.S.R.)도 11% 내외의 안정적인 수준(OECD '17.10월 기준)을 지속하고 있어 단기 대외지급능력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임.

□ IMF 외채취약성(External Debt Distress)평가는 “moderate” 유지

- IMF는 외채지속가능성분석(DSA)을 통해 니카라과의 견조한 경제성장세, 양호한 외채구조 및 FDI 유입 호조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동 국의 외채취약수준을 “moderate”으로 평가함.
- 니카라과는 최근 5년간 4%대 중후반의 경제성장세를 시현하였으며, 연간 8억 달러를 상회하는 FDI가 유입(GDP의 6% 상회)되고 있음.

□ 파리클럽 채무재조정 이후 양호한 외채상환태도 견지

- 2017년 9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의 니카라과 앞 승인금액은 총 84.5백만 달러(단기 58.8백만 달러, 중장기 25.7백만 달러)로, 이 중 연체 금액은 중장기 0.1백만 달러에 불과함.
- 한편, 니카라과는 파리클럽과 6차례 채무재조정('91년, '95년, '98년, '99년, '02년, '04년) 경험이 있으며, '04년 고채무빈곤국(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HIPC)에서 졸업함.

2. 국제시장평가

□ OECD, 2017년 니카라과에 대한 신용등급 상향 조정(7등급 → 6등급)

- OECD는 2017년 10월 국가위험도 평가전문가회의(CRE)에서 니카라과의 양호한 경제성장세 및 꾸준한 FDI 유입 등을 감안하여 동 국에 대한 국가신용도 등급을 종전 대비 한 단계 상승한 6등급으로 결정함.
- 국제신용평가 3사는 니카라과에 대해 B2 및 B+ 등급을 부여하고 있음. 한편, 2017년 7월 Moody's는 베네수엘라의 재정지원 감소에도 재정안정 및 양호한 경제성장세 지속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등급전망을 “Stable”에서 “Positive”로 변경함.
- Fitch는 2015년 12월 최초로 신용등급(B+)을 부여한 이래 현재까지 동 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등급	종전 평가등급
당행	D2 (2018. 05)	D2 (2014. 06)
OECD	6등급 (2017. 10)	7등급 (2016. 10)
Moody's	B2 (2017. 07)	B2 (2015. 07)
Fitch	B+ (2017. 08)	B+ (2016. 08)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62년 1월 26일 (북한과는 1979년 8월 21일 수교)
- 주요협정(발효 기준): 문화협정('69), 사증면제협정('95),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협정('00년), 투자보장협정('01), 무상원조기본협정('04), 운전면허 상호인정 및 교환협정('17)
- 해외직접투자 현황 : 2017년 12월말 기준(누계) 27건, 60,293천 달러
- 교역규모
 - 한-니카라과 교역규모는 2.5억 달러를 기록하였던 2011년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17년에는 1억 달러까지 축소됨.
 - 다만, 2017년 2월 21일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어 양국간 무관세 교역이 가능해 질 예정으로,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바탕으로 향후 양국간 교류협력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 한국과 파나마,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등 중미 5개국 간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으로, 현재 발효를 위한 각국 내 절차가 진행 중임. 발효시 전체 품목의 95% 이상에 대한 관세가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되며, 서비스·투자 분야 및 정부조달 시장에 대한 접근성도 개선될 예정임.
 - 니카라과의 대 한국 교역에서 자동차 및 부품, 가전제품 등의 수입 증가와 커피, 설탕, 열대과일 등 농식품군의 수출 증가가 기대됨. 또한, 니카라과는 IT 등 기술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도 기대하고 있음.

<표 4> 한·니카라과 교역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5	2016	2017	주요 품목
수 출	149	128	106	편직물, 자동차, 기타 섬유제품
수 입	12	12	11	기호식품, 합금철 선철 및 고철, 동제품
교역규모	161	140	117	

자료: 한국무역협회.

V. 종합 의견

- 니카라과 경제는 공공인프라 투자와 견조한 해외송금액 유입 등에 힘입어 연평균 4%대 후반의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음. 2017년은 수출 호조 등이 가세하며 성장률이 4.9%를 기록하였고, 2018년에도 유사 수준 달성이 전망됨.
 - 다만, 미국의 대 니카라과 투자제한법(NICA Act) 추진 등은 경제성장 둔화의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상존하고 있음.
- 만성적인 쌍둥이 적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점차 증가하여 2017년 -1.7%를 기록하였고,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수출액 증가와 해외근로자의 본국 송금액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축소된 -6.2%를 기록함.
- 오르페가 대통령은 2016년 11월 재선 당선 성공과 여당인 산디니스따(FSLN)의 과반수 의석확보로 집권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으나, 대통령 장기 집권 및 사회보장기금 개정으로 촉발된 반정부·민주화 요구 시위로 인해 정치·사회적 긴장감은 다소 고조된 상태임.
- 니카라과의 외채는 대부분 양허성 차관위주의 장기외채로 구성되어 있고,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11% 내외로 비교적 양호하여 단기 대외지급 능력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임. 다만, 증가하는 외채규모 및 원리금상환부담은 외채건정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음.

조사역 이정애 (☎02-6255-5712)
E-mail : aeleej@koreaexim.go.kr